

在日 韓國人의 文化變容 *

- 九州 居住 濟州島人의 경우 -

玄 丞 桓 **

目 次

- I. 調查의 意義
- II. 祭儀의 實相
- III. 祭儀의 變容
 - 1. 喪禮
 - 2. 祭禮
- IV. 生死觀
- V. 變容의 要因

I. 調查의 意義

오늘날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크게 4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조선시대의 행정구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은 1목 2현이었다. 1목은 제주목이고, 2현은 정의현과 대정현이다. 오늘날의 제주시 지역은 제주목이고 그 동쪽은 정의현, 서쪽은 대정현이다. 정의와 대정은 현청이 있는 지명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지역이 각각 다른 신앙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 이 글은 요카토퍼야(よかとぴや) 記念國際財團 fellowship에 依해 作成된 것임.

** 문학박사, 고전문학

들면 정의현에서는 뱀을 신앙하며 뱀에 대한 의례가 있는 반면 나머지는 단순히 두려움의 표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 제사권과 재산권에서는 제주목이 균등상속과 균등분배인 반면 나머지는 장남상속에 치중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다른 문화 현상이 나타나므로 상례, 제례의 차이도 오늘날의 행정구역이 아닌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하여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방이 된 후 일본 구주에는 비교적 제주인이 많이 살았었다고 한다.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밀항을 하여 일본 전역에서 살다가 해방이 되자 제주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판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배를 타니 돈만 빼앗고 사람은 물에 빠뜨려 죽인다더라'는 소문이 떠돌아 많은 사람들이 고향가기를 포기하고 구주에 머물기 시작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은 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대판, 동경이었으므로 구주는 타향과 다름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다시 동경, 대판으로 돌아가고 돈이 없어 가지 못한 사람들은 구주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 특히 복강에 남아있는 제주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복강 거류민단의 제주출신 명단을 보아도 사망자와 주소불명자를 제외하면 10가구 내외이고 하판에서도 10가구 정도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인 1목 2현 출신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조사에 응한 분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提報者	行政區域	地 域	備 考
金容海	濟州牧	濟州市 梨湖里	長男
金達奎	濟州牧	朝天面 朝天里	三男
高光作	濟州牧	朝天面 朝天里	長男
姜辛玉	大靜縣	安德面 沙溪里	末男
梁順子	大靜縣	翰林邑 翰林里	男便이 長男
姜泰三	旌義縣	西歸浦市 甫木里	男便이 長男
尹惠淑	旌義縣	西歸浦市 好近里	男便이 末男

제보자들의 출신 지역은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구분되면서 장남이 많다. 장남에 초점을 두는 것은 한국에서의 재산상속, 제사상속의 담당자가 장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남이 고향을 떠나 일본에서 생활하게 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해방이 되면서 더욱 살기가 어려워 고향을 떠났는데 집안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한다. 집안을 책임져야 할 장남이 생활이 어려워 고향을 등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생활이 궁핍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제주도가 1목 2현으로 나뉘어 있었음을 상기하면 위 제보자들의 출신지역이 1목 2현으로 나뉘어 있어 이들을 통해 제주도 전체 지역의 문화를 살필 수 있다.

제주도와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오랜 옛날부터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더구나 식민시대를 통해 일본과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문화의 수수는 필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구주는 특히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1945년 해방을 전후하여 제주도인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다. 이들은 재일 한국인 1세대라 할 수 있는데 1995년을 기준으로 볼 때 60세 이상 노인들이다.

이들은 10세 전후하여 독일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거의 잊어버리고 있고 고향에 대한 생각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어떤 점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에 좋은 점이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태어난 땅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나의 고향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태어나서 현재 살고 있는 제주도인들과는 다른 사고이며 그들과 제주도인들이 동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중 커다란 변화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라는 통과의례 중 관례, 혼례에서 강하고, 전통적 요소를 강하게 보이는 것은 상례와 제례이다.

재일 제주도인들의 상례와 제례에 대한 관념은 조상에 대한 관념으로 이는 민족종교에 대한 인식문제이기도 하다. 즉 신에 대한 관념의 표현형태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문화는 크게 남성문화인 제사와 여성문화인 무속으로 구분된다. 오랜 옛날에는 남녀 공통문화였을 것이지만 유교의 영향이 강하게 침투하면서 이의 구분은 분명해졌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남성이 담당하지만 제사 전에 남성에 의해 치러지는 문전신에 대한 의례와, 제사 후에 여성에 의해 치러지는 조왕신에 대한 의례가 있다. 이러한 문전신, 조왕신에 대한 의례가 유교의례에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조상숭배의례는 남녀의례가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 풍토 속에서 살던 제주도인이 일본에 건너오면서 일본 문화와 자신이 경험한 제주문화가 다른 점에 고민하고 문화 자체를 변용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조상에 대한 관념과 제사의 의미 등이 생활문화권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도래인에게 그대로 전승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고향을 떠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들의 상례와 제례의 변용을 조사하여 그들이 상례와 제례에 대한 인식과 변용의 과정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을 때 어떻게 상황에 적응하며 달라지는가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祭儀의 實相

조선시대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이었으므로 이 지역의 제주도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 그들이 도입하여 행하는 장례와 제사의 실상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事例 1 (姜辛玉, 84歲 福岡市 博多區 上川端町)

姜辛玉은 大正 13년, 그의 나이 13세에 渡日한 1세대로 처음에는 대판에서 생활했다. 福岡에서는 의류 장사를 하여 생활은 부유한 편이다. 거류민단 단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고 지금은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8남매 중 막내로 일본에는 혼자 왔다. 대판에서 살기가 힘들어 전쟁이 끝나자 고향에 가려고 下關으로 갔다. 그런데 제주로 가는 도중 돈만 빼앗고 수장시켜 버린다는 소문이 있어 가지 못하고 福岡에 머물게 되었다. 아내는 昭和 15년 해녀일을 하러 왔다가 결혼했다. 자식은 3남 1녀로 부유한 편이며 제사 때는 모두 참석한다.

조상 제사는 고향에서 지내는데, 그래도 일본에서 부모님 제사날이 되면 섭섭하여 나름대로 제사를 지낸다. 제물은 메와 갱, 과일, 적, 채소 등 제주와 동일하다. 생선은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어 소금간을 하고 꼬치에 꿰어 반듯하게 굽고 제상에 올릴 때는 꼬치를 뺀다. 고향에서도 이렇게 했다.

제사날이 되면 저녁 8시경부터 제물을 올리며 지방은 없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

안 하면서 편안히 살려고 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자식들이 그것을 배울까 봐 고향에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아들은 의사, 딸은 영어교사인 데 한국말을 전혀 모른다. 일본식대로 자식들이 소득이 있으면서부터 일정액을 식사비로 받았다. 조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는 당연하다고 본다. 이 때 받은 식사비는 자식들의 결혼비용으로 쓴다.

事例 4 (姜泰三, 68세, 下關市 竹崎町)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원으로 옮긴다. 병원에서 운명하게 되면 자식과 친척들이 와서 원미를 올리고, 물을 먹인다. 사망하면 의사가 가족들을 병실에서 나가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초종의 예를 다한다. 시체를 소독하고 코와 컷구멍을 솜으로 막아 곱게 화장을 시킨 후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 그리고 가족에게 일이 끝났음을 알리면 가족은 영안실로 시체를 옮기고 장의사에 연락한다. 장의사는 관을 갖고 와 시체를 입관하고 차에 실어 절로 옮긴다. 장의사는 망자를 위한 단을 짓고 관을 모신다.

가족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서 운명하면 곧 장의사에 연락하여 차로 시체를 절로 옮긴다. 장의사는 도착하자마자 절에 전화를 걸어 시신을 모실 여유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정한다. 가족은 장의사에게 장례순서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필요한 비용을 계약한다. 관의 좋고 나쁨, 망자가 입는 옷, 독경을 해 줄 스님의 수, 망자를 위한 단의 크기 등을 정하고 계약된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망자가 절에 도착하면 망인이 입던 옷저고리를 갖고 마당으로 나와 '날은 아무 날, 姓은 아무개, 나이는 몇살, ○○○ 復復復' 하고 그 옷을 시체 위에 놓고 나면 가족 친족이 곡을 한다. 절에서 시체를 소독하고 곱게 화장을 시킨 후 남자는 양복, 여자는 한복으로 갈아 입힌다. 이 때 가족들이 시체를 묶어달라고 하면 7매듭으로 묶는다. 장의사가 관을 갖고 와 장자는 머리를, 큰 사위는 몸통을, 딸자는 다리를 들고 관에 넣으라고 시킨다. 그리고 관 뚜껑을 덮되 고정시키지 않고 얼굴에는 수건을 덮는다. 관 위에는 명정을 덮어 둔다.

관을 모신 제단 왼쪽에 상을 차리고 成服祭를 지낸다. 상제는 양복 위에 두건을 쓰고 상복을 덧입는다. 상복만 입고 상장대를 들거나 다님을 치는 일은 없다. 여자는 건대를 하지 않고 광목 수건을 쓴다. 이것들은 시장에서 살 수 있으며 집에서 만드는 일이 없다. 성복제 제물은 제사 때와 같으며 순서도 제사 때와 같다. 제의

가 끝나면 철상을 하고 일본식으로 차려진 관 앞에서 조문객을 받는다. 이 때부터 밤샘(통야)이 시작되는 것이다. 남자들은 향을 피우고 배례를 한다. 여자들은 옆에서 곡을 한다. 절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스님이 나와 경을 읽으며 망인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때를 제외하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조문객을 위해 여자들은 돼지고기, 술, 김치 등 음식을 대접한다.

다음날, 화장장에 예약된 시간이 가까와 오면 장의사의 지시에 따라 관의 머리를 문 밖으로 향하게 하여 관 뚜껑을 연다. 그리고 얼굴에 덮은 수건을 걷어 자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한다. 자식들은 망자의 얼굴을 보며 국화꽃 한 송이와 다라나경 등을 넣는다. 망자와 친분이 있는 자는 거위가 꽃을 넣으므로 관 속이 가득 찬다. 그 일이 다 끝나면 관 뚜껑을 덮고 큰상제에게 못질을 하도록 한다. 하나를 치고 나면 장의사가 전부 못질을 하고 명정을 덮어 마무리를 짓는다. 가족들은 막상을 차린다. 이 상은 제사상과 같이 재물을 올리고 친척과 상제들이 술잔을 올리며 하직 인사를 하는 것이다.

제가 끝나면 장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진은 아들이 들고 위패는 딸이, 부인은 관을 모셨던 양 쪽에 세워두었던 나무를 들고 앞서고 그 뒤를 친척들이 관을 운반한다. 관을 차에 싣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친척은 망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왕(밥그릇)을 들고 나와 바닥에 힘껏 집어 던져 깨뜨린다. 장의차에는 가족의 일부와 승려가 타고 나머지는 개인 차를 이용하여 화장장으로 가는데 대부분이 가족과 친척 뿐이다. 친척들은 화장장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돼지고기, 술, 김치 등 음식을 준비해 간다. 친구들은 통야를 이용하여 조문하고 화장장까지 가는 일이 드물다.

화장장에서는 제약된 순서대로 일이 치러지며 정해진 화장 순서가 되면 관을 통에 반쯤 넣은 상태에서 승려는 마지막 독경을 해 주고 가족들은 술잔에 술을 부어 망자에게 바치는 시늉을 하고 그 다음 자신이 조금 마신다. 이 과정이 끝나면 화장이 이루어진다. 이 때 친척은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화장이 끝나면 가족들은 소골을 골호에 주워 넣고 다시 절에 간다. 승려에게 장례가 끝났음을 알리고 골호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온다. 승려는 가족을 대신하여 망자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

집에서는 망자를 위해 우제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화장장에 가지 않은 여자 친척들이 미리 집에 와서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제사는 제사 때와 같이 차리며 순서도 동일하다. 축은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로 다르다. 축문은 읽거나 쓸 줄

셨으므로 사진도 없다. 글을 모르므로 지방은 쓸 줄 모른다. 陳設은 左脯右醢, 魚東肉西, 紅東白西 등의 원칙을 따르고 제상 앞에는 향상을 놓아 茅沙와 香爐, 香盒 등을 놓는데, 茅沙는 正式 茅沙가 아니라 접시에 고사리채 세 개를 놓아 茅沙로 대치한다. 門前祭床은 없고, 제물은 성의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맛있는 것으로 많이 올린다. 몇년 전까지는 밤 12시가 되어 제사를 지냈지만 아이들이 직장, 손자들이 학교 때문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지니 시간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사 때 「어머님, 아버님 자손이 참석하기가 어려워 다음부터는 9시에 제사를 지내겠으니 참석하여 많이 잡수십시오」라고 고한 후부터 9시가 되면 행제한다. 이것이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혼자서만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자손이 있어야 하겠기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술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매번 용서를 빌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

事例 2 (金達圭, 74세, 福岡市 博多區)

필자가 만나본 金達奎는 74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해 보였으며 생활은 부유한 편이 아니었다. 자식도 없고, 죽으면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으나 고향 친척들이 벌초, 제사를 해야 하므로 친척들에게 폐가 될 것 같아 아내에게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김달규는 5형제 중 셋째로 8세에 부친과 대판에 건너와 7개월 가량 살다 제주로 건너가서 살았는데 생활이 어려워 다시 13세 때 동네 사람을 따라 도일하여 대판에서 살았다. 제주에는 막내가 있고, 지금 그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넷째가 살고 있다. 두 형 내외는 일본에서 살다 돌아가셨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화장하고 난 후에야 참가할 수 있었다.

둘째 형은 아들이 없어 제주출신 사위가 대신 제사를 지내고 있고, 큰형네는 장남이 지내고 있다. 돌아가신 후 몇년 동안은 돌아가신 전날 제사를 지냈는데, 그 후에는 일요일을 택해 제사를 지내므로 그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화요일이 제사날이면 그 전 일요일에, 금요일이 제사날이면 다음 일요일에 제사를 지낸다. 영혼이 없는 날에 제사를 지내는데 참석해 봐야 조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향출신 아내와 헤어지고 40세가 넘어 일본인 여성과 재혼하여 살고 있다. 아내의 한국식 제사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부모 제사날이 되면 고향에

가지 못하므로 아내와 내가 부모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제물 준비는 내가 가르쳐 주고, 글을 모르니 지방은 없고 대신 사진을 놓는다. 제물은 메와 갱, 술, 과일, 적, 채소만으로 간단히 한다. 조부 이상은 고향에서 동생들이 지내고 제사날이 되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 일본에서 다시 지내는 것이다. 제사를 고향과 일본에서 같이 지내면서부터 몸이 자꾸 아파 점을 치니 두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원인이라 하여 지금은 안 지내고 있다.

조상에 대한 벌초, 제사를 한 번도 지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죄스럽게 생각하여 고향의 동생에게 고마움에 보답하는 뜻으로 집을 지어주었다. 장손이 제사와 벌초를 담당해야 하는데 큰형은 돌아가셨고, 그 자식은 하려고 없으니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事例 3 (高光作, 64세, 福岡市 東區)

그는 17세 때 대관에 건너와 일본인들이 하지 않는 천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는 사람이 있는 대관에서는 깨끗한 일을 할 수 없어 모르는 곳에 간다는 것이 福岡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7남매 중 장남이지만 일본에 있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고 고향에서 동생들이 제사를 맡아 지내고 있다. 아내는 일본인인데 죽기 전까지 부모 조부모 제사를 지냈다.

지방은 쓸 줄을 모르니 사진을 놓고 있다. 제기는 제주에서 사 왔다. 제물은 자신이 가르쳐 주어 제주식으로 다 갖추고 밤 12시가 되면 제사를 지냈었다. 다만 묵이 없어 덴뿌라를 대신 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아내가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며 부모 제사날이 되면 제주도에 가고 있다. 조상 없는 자손이 없는 법이므로 제사날이 되어 밥을 올리지 못할 처지가 되면 물 한 그릇이라도 떠 놓고 조상을 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불단에 향을 피우고 부모님에게 그날 할 일을 보고드린다. 조상에 대한 생각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아내가 있을 때 제사는 우선 몸상을 차리고 그 옆에 문전상을 차렸다. 먼저 문전제를 지낸 후 몸제를 지냈다. 제관은 자신과 아들 뿐이므로 혼자서 집사 역할까지 다 했다. 부엌에는 따로 龜王床을 차려 두었다가 본 제사가 끝나면 치우는데 七星神을 위한 상은 없다. 특별히 조왕상에 배례는 하지 않는다.

자식은 1남 1녀로 고향을 다녀온 일이 없다. 고향에는 부모님이 물려준 그의 재산이 있는데 조카들이 돌보고 있다. 매년 벌초 때마다 참가하는데 조카들이 일은

모르므로 대판에서 받아 온 것을 보관했다 사용한다. 병풍을 쳐서 상제들이 곡을 하면서 제사 때와 같이 제물을 차리고 參神, 降神, 初獻, 讀祝, 亞獻, 終獻, 挿匙, 添酌, 獻茶, 雜食 順으로 행한다. 위를 줄을 모르므로 讀祝을 하는 일은 없고 撤饌 때 불사르기만 한다. 初虞祭가 끝나면 메와 갯, 채소, 적 등 제물을 새로 갈아 올려 재우제를 치른다. 다음에는 역시 제물을 갈아 올려 삼우제를 치른다. 삼우제가 끝나면 梟復했던 옷은 병풍에 걸거나 상자에 넣어 상 앞에 두었다가 1년 후 머리창(머리에 땅아 묶었던 헝겍오리)들과 같이 태워 버린다. 삭망제는 대부분 매달 첫 날에 치르며 졸곡제는 안 한다. 1일과 15일에 치르는 것을 1일에만 치르는 셈이다.

운명하고 1년이 지나면 소상을 치른다. 친척들이 모여 제사 때와 같이 음식을 차리고 상제는 상복을 입는다. 참가자는 가족, 친척들 뿐이므로 소상은 저녁에 시작되며 자시가 되면 제를 지내고 끝낸다. 제식은 삼헌삼작으로 제사 때와 같으며 철찬 때에 축을 불사를 뿐 독축이 없다. 이는 읽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소상 제가 끝나면 제물을 모두 바꿔 올려 대상제를 지낸다. 제의가 끝나면 고복했던 옷과 머리창을 불사른다.

대상 후 3개월 안에 禪祭를 치른다. 다른 제는 겸하여 치르더라도 이 담제만큼은 꼭 별도로 치른다. 상제는 두건을 쓰고 제사 때와 같이 제물을 올리고 치른다. 대상 때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이 메는 왼쪽, 갯은 오른쪽이었었는데 담제부터는 그 반대로 한다. 假葬, 改葬, 治山과 같은 과정은 매장 풍습이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대상 후부터는 기제사를 치른다.

事例 5 (尹惠淑, 50歲, 北九州市 八幡西區)

제보자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시부는 서귀포이고 장남이다. 자식들은 5형제 모두 대판에서 출생, 대판, 동경, 구주 등 각처에서 살고 있다. 시부모는 나이가 들자 고향에 가서 살다 돌아가셨으며 제사는 대판과 고향에서 각각 지내는데 대판에서는 사진을 놓고, 고향에서는 위패를 놓는다. 시부모는 저축한 돈으로 땅을 사서 조상을 모시고 자신도 거기에 묻히셨다. 그러므로 장례식과 제사는 제주도식일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얼마 전 둘째 시숙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자세하게 일본에서 하는 제일제주인의 장례식을 본 일이 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숨으로 코와 귀를 막고, 수의는 전문가들이 와서 입힌다.

장의사가 와서 장례식장으로 망자를 옮기고 입관하면 제단을 차려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한다. 조문객이 오기 전에 제주식으로 먼저 제사를 지낸다. 제단 옆에 작은 상을 차리고 성복제를 지낸 후 철상해 버린다. 상제는 까만 예복 위에 제주식 상복을 입고 두건을 쓰고 상장대를 들었다. 대판에서는 제주도식 제물을 다 구할 수 있으므로 제주와 꼭 같다. 제의가 끝나면 오후 7시 경부터 通夜가 시작되므로 상복을 벗고 예복을 입은 채로 조문객을 맞이한다. 그들은 대개 자정 이전에 돌아가며 남은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향을 꺼뜨리지 않게 주의한다. 다음날 정오에 화장장에 예약이 되었으므로 오전 10시경에 제사를 치렀다. 그리고 사진은 부인이, 위패는 장남이 들어 영구차에 타고 나머지 친척들은 다른 차로 갔다. 관 속에는 꽃, 지전만이 아니라 생전에 좋아하던 예복을 넣었다. 망인은 바둑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바둑 알도 몇개 넣었다. 조문객을 위한 음식은 바닷고기를 넣은 미역국, 삶은 돼지고기, 또 옥등을 반찬으로 드렸다.

관을 차에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밥그릇을 마당에 집어던져 깨는데 이것은 이승과 인연을 끊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장장에서는 스님이 와서 독경을 하고 관이 통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이 없는 간이상을 차려 종이컵에 술을 조금 따라 관을 향해 올리는 시늉을 한 후 자신이 조금 마시고 내려놓는다.

화장이 끝나면 소골을 골호에 담고 사진,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써 붙이고 절에 가서 스님의 설교를 듣고 바로 7일제를 치렀다. 일본에서는 49일째의 제사를 치르고 나면 망자에 대한 장례의례가 모두 마쳐지는 것이다. 친척들이 동경, 구주 등 여러 곳에서 와야 하므로 제주식 대로 할 수가 없다.

골호를 절에 맡기고 7일제를 지낸 후 집에 돌아와 우제를 지낸다. 이 때는 다시 예복 위에 상복을 입고 상장대를 들었다. 순서는 제사와 같았으며 초우에서 재우, 삼우로 넘어갈 때 축을 고하지 않고 그냥 든 채 음식만 새로 바꿔 올렸다. 또 제사 마지막에 잡식을 하지 않았다. 제사는 밤 12시가 되어야 비로소 행제를 한다.

그리고 일본의 제주인들이 제주식을 지키지 못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제주식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 살다 죽으니 직장을 비롯한 여러 모임에서 관계된 친구들이 오는데 한국식으로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식 제사를 지내기 전 1시간 쯤 전에 한국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히려 고향에 대한 의식이 강한 예라고 본다.

제보자는 한국에서 성장하면서 화장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죽으면 화장하여 마음에 드는 절에 부탁하여 빌고, 자식들이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와서 볼 수 있게 하자고 남편과 합의했다. 또 일본에 살면서 자식 교육시키고,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었고, 남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여기서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事例 6 (金容海, 66세, 大阪市 北區中崎)

20세에 대판에 건너와 1950년부터 86년까지 일본학교에서 근무하다 퇴임했고, 지금은 대판 거류민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병이 나면 집에서 운명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운명한다. 사체를 영안실로 옮기고 장의사에 연락을 하여 장례 비용을 계약한다. 장의사는 사찰이나 장례식장으로 연락을 하여 사체를 모실 방이 비어 있는지, 유가족들이 머물 방이 있는지를 묻는다. 빈 곳이 있으면 장의사는 영구차로 사체를 옮긴다. 제주인은 교회 신자를 제외하고는 종교에 구애받지 않는다.

사체를 절로 옮기면 바로 사체를 병풍으로 가리고 상을 차려 성복을 한다. 고복이 없다. 일본에서의 성복은 장의사가 관을 가져오면 행해지는데 장의사가 호상옷을 갖춰 입혀 입관하는 것이다. 곧 입관이 성복인 셈이다. 장의사는 전문인이므로 한국식 장례순서를 잘 알고 있으며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면서 호상옷을 입히고 명정을 쓰고 한다. 1세대들은 전통식을 따르려고 하지만 2, 3세대는 전통식을 모르니 양복을 입고 완장을 두른다. 상복은 입지 않으며 친척이 강요하면 두건은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인 조문객에게 상복은 이상하게 비친다며 입지 않으려 한다.

저녁이 되어 통야가 시작되면 망인과 관계된 사람이 대부분 찾아와 명복을 빌고, 다음날 장례식에는 거의 참가하지 않는다. 망인과 상당히 연고가 깊은 분들과 가족 친지만 참가하는 정도이다.

조문은 직장 동료, 친지, 친척 등인데 세대가 바뀌지면서 향리출신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직장 때문에 바쁘니 알리는 것이 오히려 폐가 된다고 생각하는 2세 3세들이 많다. 모든 일을 장의사가 책임지므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가친척이 없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인 장의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1세대들은 어렸을 때 도일했거나 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직업은 노동, 품팔이가 대부분이어서 옛날 제법을 모른다.

다른 것은 다 안하려고 하는데 銘旌은 꼭 쓴다. 이것은 관 위에 덮는 것으로 「學生金公之柩, 또는 孺人金氏之柩」라고 쓴다. 일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망인이 학생이 아닌데 왜 학생이라고 쓰느냐며 의문을 표한다.

제물은 제주식과 꼭 같다. 일본 절에서는 고기를 못 올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제주인들이 자꾸 찾아와 빈소를 차리고 우리 식은 고기를 올려야 하는 것이라며 올려므로 이제는 스님들이 모른 척 한다. 즉 불상 앞에 사체를 모시고 제단을 차려 고기를 올리는 것이다. 만약 못 올리게 하면 다른 곳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수입 때문에 일본 절이 수용하는 것이다.

제주인은 이꾸노꾸(生野區)에 3만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의사의 뜻대로 장례를 치른다. 일본 스님이 와서 독경하고, 영결식을 치러 弔書, 弔電을 낭독하고 화장장으로 간다. 화장 후 유골을 골호에 넣고 일본 절에 맡기고 집에 돌아와 한꺼번에 삼우제를 지낸다. 지방은 「學生府君神位 또는 孺人(本貫)○氏神位」라 하는데 집안에 따라 本貫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 三虞祭祝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干支 月干支朔 日干支 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虞祭

時俗順從 式遵典禮 初再三虞 一時竝行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虞事 尙

饗

이렇게 볼 때 전통식은 成服祭와 三虞祭 뿐이다.

삼우제를 치르고 나면 삭망제를 치러야 하나 학교 직장 때문에 매달 초하루에 지낸다. 요즘에는 매달 첫 일요일을 택하여 지낸다. 또 집안에 일본식의 불단을 만들어 망인을 모시는 일이 있다. 깨끗하기 때문이다. 제주식으로 상을 만들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화장 후 집안에 빈소를 마련하는 일은 없다.

소상은 1년 후 제사처럼 치르는데 축을 고하고 배례만 하는 실정이다. 곡을 하는 것은 이웃에 미안하고 소음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20년 전에는 회사에서 휴가

까지 얻어 일가친척, 향리사람까지 다 참석하여 아침, 점심, 저녁 상을 올려 제를 지냈으나 이제는 가족만 한다.

소상이 끝나면 바로 메만 바뀌 올려 대상 축을 고하고 다시 메만 바뀌 올려 담 제축을 고하여 마친다. 곧 1년이 되면 담제까지 마쳐 탈상하는 것이다. 소상이든 대상이든 곡을 하지 않으므로 즐곡제는 없다. 소·대상(또는 담제를 겸하는) 합祭祝은 다음과 같다.

小·大祥(또는 禫祭를 兼하는) 合祭祝

維歲次 干支 月干支朔 日干支 ○○ (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忌日

時代遷易 隨於風潮 大小祥祭(又兼禫祭)

一時並行 祭禮違序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遷祥事 尙

饗

해방 후 10, 20년 정도까지는 1세대들이 있어 그분들이 축을 쓰고 읽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모른다. 현대 교육을 받은 후손들이 부모가 하는 제사에 대한 의미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제사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가할 필요를 느껴 88년에 濟州島親睦會에서 『祭祀의 傳統과 바람직한 方法』(東方文化, 1989)을 낸 후로, 『알아두어야 할 祭祀』(東方文化, 1990)라는 이름으로 SRI, 東京光山金氏宗親會, 民團大阪部 地方本部, 濟州島關西濟州島民協會에서 重版되었다.

<忌日祭祀>

門前床은 없고, 당일제를 지낸다. 제물이나 순서는 제주와 동일한데 다른 집안에서는 지방을 쓰는 대신 나는 위패를 쓴다. 전면에는 顯考學生府君神位, 뒤에는 사망일, 생일 등을 써 놓는다. 제사는 대개 조부까지 지내는데 젊은 세대는 부모에 게만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많다.

표선읍, 남원읍, 김녕 출신 집 제사에 참석했을 때 보니 문전상 대신 칠성상이

라 하여 몸상의 제물 외에 돼지 머리를 올린 것을 본 일이 있는데 몸상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고향에서 제사를 하고 있는 경우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방을 써 올리지 않는다. 제사는 양쪽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대개 조부까지만 제사를 지내므로 장손이 죽어 다음 세대로 제사가 넘어갈 때는 다음과 같은 止祭祝을 고한다.

止祭祝

維歲次 干支 月干支朔 日干支 孝孫○○ (奉祀者名)

敢昭告于

顯高(曾)祖考學生府君

喪制有期 追遠無及

顯高(曾)祖妣孀人○氏

式遵典禮 祀止四代(三代) 不勝感愴

謹以 清酌庶羞 百排告辭 尙

饗

Ⅲ. 祭儀의 變容

1. 喪禮

1) 初終

일본에서는 사고사가 아닌 한 가족 구성원이 병이 들면 우선 병원을 찾는데 모두가 병원에서 사망하게 된다.

병세가 위중해 가면 자녀와 근친들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긴다.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 가정으로 환자를 옮기는 일은 없다. 제주에서 임종이 가까왔을 때 집으로 옮기는 것과는 다르다.

종명하기 직전에 이르면 가족 및 근친들이 조용히 유언을 듣는 일은 있지만 제주처럼 원미를 마련하여 입에 조금씩 넣는 일은 드물다. 하관의 강태삼의 경우는 독일 1세대들이 사망했을 때 즉 20년쯤 전에는 원미를 먹었다고 한다. 대판의 김

용해에 따르면, 장례 순서를 모르고, 모든 사항을 의사에게 맡겨버렸기에 의사 시에 따를 뿐 가족 주장대로 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눈을 뜨고 사망한 경우는 제주와 같이 눈을 내리쬐면서 ‘모든 것 용서하고 눈을 감으십시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감겨드린다.

2) 收屍

운명이 확인되면 의사와 간호사가 가족에게 알려주고 바로 殮을 한다. 즉 간호사가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시체를 전부 소독하고 콧구멍, 귓구멍 등을 뭇숨으로 막고 곱게 화장한다. 그런데 대판처럼 친척이 많이 있는 경우는 그들 손으로 하기도 한다. 제주에서는 가족, 친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구주에서는 의사, 간호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3) 阜復

병원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는 고복 순서가 없다. 하관의 강태삼에 의하면 절에서 고복한 경우가 있다.

나의 숙부의 일이다. 병원에서 운명하면 장의사의 차를 이용해 절로 시체를 옮긴다. 장의사들이 시체를 모시고 가면 망자의 윗저고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와 ‘날은 아무날, 姓은 아무개, 나이는 몇살, ○○○ 復·復·復’ 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어렸을 적 아버지의 장례를 본적이 있어 이처럼 하라고 아저씨에게 말하자 그대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고복했던 옷을 갖고 들어와 시체 위에 놓고 가면 가족, 친척들이 곡을 했다.

제보자의 나이가 68세인 점을 감안하면 젊은이들은 방법을 모르고 노인들은 어렸을 적 기억에 의존하며 일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訃告

장사가 가면 下關에서는 민단 사무실로 알리고 다음에는 가족들이 근친들에게 전화로 알리는 정도이고 정식 부고를 작성하는 일은 없다. 下關의 경우는 장례 연락을 받은 경우 민단 사무국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장례에 참석한다고 하며 망자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연락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도시가 큰 福

岡, 大阪의 경우 민단에 알리는 일이 없다.

5) 殮襲과 入棺

장례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은 장의사가 준비한다. 그러므로 제주에서처럼 가족이나 근친들이 하는 일이 없다. 상제가 입는 상복은 시장에서 사다가 입는다. 상장대는 없는데 대관처럼 제주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상장대를 마련한다고 한다. 여자들은 광목 수건을 쓴다. 시장에서 상복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대관 근친들에게 연락해 미리 구해 놓기도 한다. 대관 한국인 시장에 가면 제주의 물건을 그대로 가져와 파는 일이 많다.

병원에서 염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영구차로 시체를 절에 옮겨 가족들이 염습을 한다. 향탕수가 아닌 소독약품을 쓰며 내의는 새것으로 하고 옷은 평소 입던 것 중 깨끗한 양복을 입힌다. 下關에서는 호상옷을 입혔다고 하나 20년 전 일이다. 이 때의 호상옷은 대관이나 제주에서 구해 놓았다.

爪髮囊은 따로 마련하여 넣으며 시신은 묶지 않고 양손을 배 위에 올려놓는 정도이다. 이러한 일은 절이나 영결식장에서 이루어진다.

입관은 장의사가 도착하면 즉시 이루어진다. 염습이 끝나고 입관을 하고 뚜껑을 덮어 그 위에 장의사가 써 온 명정을 관 위에 덮어둔다. 명정은 친척들이 쓰는 경우도 있으나 장의사가 한국인들의 장례를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다. 관은 뚜껑에 못질을 하지 않고 덮어두기만 하며 밤샘(通夜) 후 다음날, 화장장으로 떠날 때 보공을 하고 못질을 한다.

보공은 조발낭, 다라니경, 꽃으로 가득 채운다. 장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며 잘 태워지지 않을 것은 넣지 못하게 한다.

6) 成服祭

장의사에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성복제를 지낸다. 시체를 넣은 관 앞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큰 제단을 차린다. 여기에는 일본식으로 과자와 과일 등을 올린다. 그리고 그 옆에 다시 한국식 제사상을 차린다. 제물은 메, 갱, 적, 과일, 떡 등 여러가지를 정성으로 가득 올려 성복제를 지낸다. 일본인의 장례에는 돈육, 해어 등을 올리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제주인의 경우는 올린다. 그런데 조문객이 제주인보다는 일본인이 많기 때문에 제주식의 상만 차려 놓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

복제를 하되 제단 곁에 따로 제주식 상을 차리고 제의를 행한 후에 철상하고, 과일, 과자 등만 올린 일본식 제단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는 것이다.

성복제는 제상을 향하여 주상이 분향 후 헌작하고, 상제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헌작하고 직배로 재배한다. 성복제가 끝나면 조문이 시작된다. 상제들은 일본식 제단 우측에 꿇어앉고 조문객들은 제단을 향해 분향하고 배례를 한다. 요즘은 분향 후 합장 기도하는 일이 많다. 여자 조문객들도 분향하고 합장 기도하는데 제주에서는 여자는 배례를 하지 않는다.

남자 상제가 조문객을 맞이하는 동안 여자 상제와 일가 친척들은 음식 준비하기에 바쁘다. 조문객들에게 돈육, 술, 밥, 김치 등을 대접한다. 일본인들은 장례 때 과자와 차를 마시는 정도이나 한국인들은 조문객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바쁘다. 즉 망자에 대해 슬픔을 표할 여유가 없다.

부조는 돈이나 꽃으로 대신한다. 꽃은 장례식장 가득 채워지는데 다음날 보공으로 사용되고 화장장에서 태워진다.

7) 밤샘(通夜)

밤샘을 오쓰야(通夜)라 한다. 제주에서 상을 지킨다는 의미와 같은데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담소를 하며 밤을 지낸다. 조문객들은 香典을 靈前に 올리고 조문을 하며 자정 무렵이 되면 모두 돌아간다. 결국 친척과 가족들만 모이게 되며 여자들은 이들을 위해 술, 고기 등을 대접한다.

8) 日晡祭

제주에서 매장하러 떠나기 전날 일포제를 치르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일포는 通夜 다음날 화장장으로 떠나기 전에 치른다. 사망과 화장이 2-3일 기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포제는 장례 순서에서 거처야 하는 절차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관 옆에는 따로 상을 차리는데 제사 때와 같이 제물을 진설한다. 상제는 까만 예복 위에 상복을 걸치고 參神, 降神, 獻酌, 讀祝, 捧匙, 添酌, 獻茶, 雜食의 順으로 진행한다. 이 때 獻酌은 主喪이 單爵으로 하고 배례는 橫拜로 한다. 이 때 독축은 하지 않는다. 이 제순의 내용은 <祭禮>에서 설명한다. 이 때 잡식한 것은 따

로 보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적당히 치운다.

화장장에서는 화장하기 위해 예약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화장을 시킨다. 따라서 제주에서 시간을 정해 매장하듯이 시간을 정할 수가 없다. 화장이라는 제도로 인해 장례의 변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화장장으로 떠나기 전에는 돈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스님이 와서 독경을 하여 명복을 빌어준다. 절을 빌어 장례식을 치를 때도 독경할 때만 승려가 참가하고 그 외는 관여를 하지 않으므로 가족이 하고 싶은 대로 일포제를 치를 수 있다. 다만 화장장으로 떠나기 전에는 망자를 위해 빌어주는 독경을 하므로 이 시간을 길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일포제를 빨리 지낸다. 예를 들어 12시에 화장을 하게 되면 9시 경 일포제를 치르는 것이다. 일포제보다는 스님의 독경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셈이다. 이 제가 끝나면 운구차에 싣고 화장장으로 떠나게 된다. 일포제를 치르고 밤샘을 하는 제주와 달리 밤샘(오쓰야)를 한 후 일포제를 치르는 셈이다.

9) 土神祭

시체를 매장하지 않으므로 토신제는 없다.

10) 發靱

화장장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발인시간이다. 장의사에서 운구차가 오면 장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별 인사를 행한다.

장의사가 관 뚜껑을 열고 가족, 친지들은 망인과 이별 인사를 한다. 이 때 보공으로 꽃을 넣는다. 가족들은 장의사의 지시대로 한 사람씩 꽃을 들고 망인과 이별 인사를 하고 관 속에 꽃을 집어넣는다. 가족 모두가 인사를 하고 나면 관 뚜껑을 닫고 장남에게 못을 치도록 한다. 장남이 처음 못을 치고 나면 이어서 장의사가 전부 못을 친다. 다음에는 發靱祭를 행한다. 관 앞에 간단하게 상을 차려 가족들이 술잔을 올리고 재배하는 것이다. 발인제가 끝나면 가족 친지들이 모여들어 양편에서 관을 들어 운구차에 싣는다. 먼저 망인의 사진을 시작으로 꽃들이 운구차에 옮겨지고 관은 맨 마지막에 싣는다. 운구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망인이 사용하던 자왕(밥그릇)을 마당에 힘껏 집어던져 썬다. 그리고 가족들은 다른 차를 이용하여 화장장으로 향한다.

화장장에는 스님과 가족, 일부 친지만이 참석한다. 화장할 차례를 기다리는 동

안 참석자들은 술, 고기 등을 먹기도 한다. 이 때 화장장에 갖고 갔던 음식은 비록 남더라도 버린다. 집에 가져오면 좋지 않다고 하여 절대 가져오는 일이 없다.

화장할 순서가 되면 스님의 독경이 마지막으로 행해진다. 제주에서의 하관제에 해당한다. 가족들은 술을 잔에 부어 망인에게 올리는 시늉을 하고 다음에는 자신의 입에 갖다 대어 조금 마신다. 이것이 끝나면 화장을 한다.

화장장에서는 시간을 정해 가족들이 와서 소골을 모아가도록 한다. 당일인 경우도 있고 다음날인 경우도 있다. 가족들이 골호에 남은 뼈를 추스러 넣고 광목으로 싸서 사진, 본적, 주소, 성명, 사망일을 써 붙이고 사에 가서 말긴다. 사진만 붙이고 가면 스님이 써 주는 일도 있다. 이 때부터 절에서는 망인의 골호를 받아 매일 불공을 드려주는 것이다. 화장 후 7일 췌가 되면 가족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다음에는 49일 제 때 참가하여 불공을 드림으로써 탈상을 한다. 절에서는 골호를 1년 보관하고 다음에는 자신들의 묘에 옮겨 보관한다. 돈이 없어 묘를 만들지 못했을 경우는 그대로 절에 맡겨버리기도 한다. 그러면 절에서는 10년 정도 보관하다 절 소유의 납골당에 안치한다고 한다.

11) 虞祭

골호를 절에 맡기고 집에 돌아온 후 초우제를 지낸다. 제사 때와 같이 제물을 진설하고 參神, 降神, 初獻, 讀祝, 亞獻, 終獻, 捧匙, 添酌, 獻茶, 雜食 順으로 행한다. 실제로 독축을 한 것은 下關의 경우이고 그 이외는 축만 올렸다가 잡식 후 불사르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글을 모르기 때문이다.

초우제가 끝나면 메와 갯을 바꿔 올려 바로 재우제를 지낸다. 이는 초우제의 순서와 같다. 재우제가 끝나면 다시 메와 갯을 바꿔 올려 삼우제를 지낸다. 역시 제의 순서는 초우제와 같다.

대관의 경우는 삼우제 축을 겸하여 한번에 읽는데 九州에는 옛 형식대로 구분해 치르려는 의식이 엿보인다.

12) 上食

下關의 경우는 평상시 쓰던 방 구석에 작은 상을 차려 생전과 같이 하루 삼시 식사를 올린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이 담배를 올리고, 송충을 올리는 일을 꼭같이 한다.

그러나 요즘은 집도 좁고,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상식하는 일은 없다. 일본인들이 하듯이 집에 불단을 차려 아침에 식사를 올려 합장하고 기도한 다음 내려놓고, 외출할 때 불단을 향해 합장, 기도하고, 돌아와서 똑같이 합장, 기도한다. 즉 언제나 불단과 관계를 맺으며 망인에 대한 추모의 기도를 행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제주식 상차림보다 불단을 설치하는 것이 깨끗하고 손님이 와서 보아도 깨끗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그들은 제주의 경우 매장 후 상식을 통해 고인과 인연을 맺는데 일본불단의 경우는 상식을 올리는 기간이 지나도 항상 망인과 관계를 맺으며 지낼 수 있으니 불단을 설치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돈이 없어 불단을 마련하지 못한 집은 화장 후 절에 맡기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순서를 끝내고 있다.

13) 朔望祭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아침에 지내야 하기 때문 멀리 있는 친척이 참석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을 택하여 지낸다. 장남 집에서 차리며 보름날 지내는 일은 없다. 메, 갱, 떡, 고기적, 해어 채류, 과류 등 제물을 진설하여 제를 지내는데 상복을 입거나 곡을 하는 일이 없다.

14) 卒哭祭

화장이 끝난 후부터 곡을 하는 일이 없기에 즐곡제는 없다.

15) 大·小祥

사망 후 1년 제 기일에 소상을 지내는데 제사처럼 지낸다. 가족 중심으로 행해진다. 자시가 되면 제를 지낸다. 祭式은 三獻三酌의 본식으로 지내니, 즉 參神, 降神, 初獻, 讀祝, 亞獻, 終獻, 挿匙, 添酌, 獻茶, 雜食, 辭神(大祥에만 辭神을 함)의 順이다. 下關의 경우는 소상축을 고하고 제를 지내고 난 후, 메와 갱을 바꿔 올려 다시 대상축을 고하고, 대상이 끝나면 다시 메와 갱을 바꿔 올려 담제축을 고하여 한꺼번에 담제까지 마쳐 버린다. 대부분은 소상 때 대소상, 담제를 합친 축을 고향으로써 끝맺는다.

여상제나 근친 부인들이 장례식 때 복의 일종으로 머리에 꽂던 형깃오리 끈 ‘머

리창'은 이날 제사가 끝나면 소각한다. 남상제들은 장례식 때 들렀던 완장을 이 때 역시 소각한다.

대상이 지나면 주부가 주관하여 심방(무격)을 빌어 시왕맞이를 했던 일이 있는데(20여년 전) 심방은 대판에서 불러왔다(下關의 경우). 그러나 지금은 심방도 없고 돈도 많이 드니 곳을 하는 일이 없다.

16) 禪祭

下關의 경우는 삭망제에서 삭제만을 하고, 대소상에서 소상으로 대상을 겸하는 일은 있어도 담제는 반드시 지낸다. 이는 담제를 지내야만 비로소 다음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즉 담제는 생자와 사자를 구분짓는 제사이다. 대상 때까지는 생인이 먹듯이 메는 왼쪽, 갯은 오른쪽에 올렸었는데 담제 때부터는 오른쪽에 메, 왼쪽에 갯을 올림으로써 생인이 아닌 사자임을 밝히는 것이다.

17) 假葬

매장을 않으므로 없다.

18) 改葬

매장을 않으므로 없다.

19) 治山

제주의 치산과는 달리 묘지의 비석을 깨끗하게 닦고 청소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2. 祭禮

1) 忌祭

가. 祭需와 陳設

1세대들은 글을 모르는 자가 상당수 있다. 그들은 어렸을 적에 도일했기 때문에 국민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고향을 떠난 것이다. 대부분이 15세 내외에 고향을 떠났다는 사실은 제사의 의의를 알고 조상을 추모하기 보다는 부모가 행해 왔기 때문에 부모의 뜻을 이어받는다라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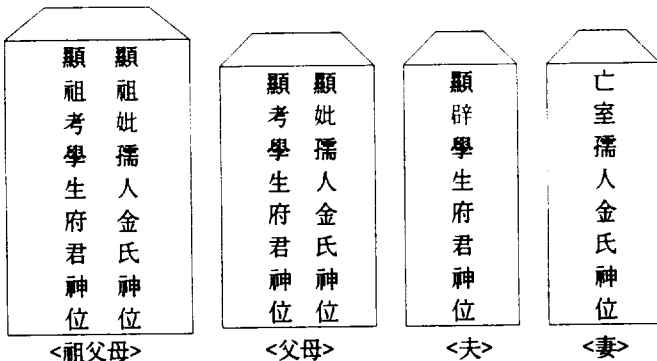
정도밖에 없다.

이러한 사고는 그들의 봉사 대상이 조부모, 부모에 한정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올 때의 기억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곧 조부모, 부모 형제에 대한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고조부모까지 지내야 한다는 사대봉사가 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린다. 자신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관념이 그들에게는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제물은 제사를 지내는 자의 성의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제물 곧 豚肉炙, 牛肉炙, 메, 갱, 생선, 고사리, 콩나물, 사과, 굴, 떡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소에 망인이 좋아하던 것으로 많이 올린다. 보기 좋게 올리는 것이다. 3세들은 기증편, 송편보다는 맛있는 빵을 올려야 한다고 한다. 영혼이 먹고 가는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자손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 紙榜

이들의 제사에는 지방이 없다. 글을 모르기 때문에 쓸려고 해도 쓸 수가 없고, 지방에 쓰인 글자로 망자를 표시하기보다는 사진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는(姜辛玉의 경우) 지방이나 사진도 없이 상만을 차려 기일이 돌아오면 제를 지내기도 한다. 대판처럼 제주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제주에서처럼 顯考學生府君神位, 顯妣孺人○氏神位(○은 姓氏임.)라 쓴다. 실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다. 門前祭

門前祭床을 준비하는 것은 대판에서만 보인다.

라. 行祭

고인이 별세한 기일에 올리는 것이 제주의 제사로 대부분 사대봉사를 한다.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제물은 기일 전에 준비하여 상을 차리고 준비해 두었다가 기일이 되는 시간인 자시에 지낸다. 이것은 기일 전날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므로 전일제라 한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다가 또는 필요에 의해 기일날 지내는 일도 있다. 전날 제물을 준비해 놓았다가 자시에 치러야 하는데 이를 놓쳤기 때문에 다음날인 기일날 밤 11시 이전에 치르는 제사가 있다. 이를 후일제, 또는 당일제라 한다. 밤 11시 이후 곧 자시가 되면 다음날이 되므로 그 이전에 치러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제주인들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제사를 제주도에서와 같이 밤 11시가 되어 지내려고 하면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제사는 한 조상의 자손들이 모여 추모하는 의례이므로 어른이든 아이든 참석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만을 위해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어른은 직장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한다. 또한 이들이 서로 가까운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北九州에서 福岡으로, 또는 大阪으로 차를 타서 몇 시간씩 이동해야 제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일찍 직장에 가서는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하다. 실제로 오전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을 때 지내야 하는 제사는 거추장스러웠다고 한다(金達奎의 경우). 또한 12시에 제사지내는 것을 고집했다니 손자들이 제사에 참여치 않아 시간을 변경했다(姜辛玉의 경우).

그래서 그들은 당일제 곧 7~8시경 제사를 지내고 가족 친척이 모여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한다. 고지식하게 자시에 행제하는 것을 고집하면 1세대에서만 제사가 행해지고 다음 세대에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식이 그들에게는 강하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인 자시는 기일 전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를 말하며 제사는 이 시간에 지낸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보다 1시간 일찍 지낸다고

한다. 그 이유는 조상신이 일본에서 제사를 받고 다시 제주도로 가서 제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시간이라는 여유를 두는 것은 북강에서 제주까지 가는데 걸리는 비행기 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福岡 양쪽에서 제사를 지내는 셈인데 이 때 福岡에서는 지방을 붙이지 않고 지낸다. 양쪽에서 같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며 만약 양쪽에서 제사를 지내면 집에 흉사가 닥친다고 한다. 따라서 고향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그냥 있어도 되지만 자식된 도리로 마음이 편치 않아 제사를 지낸다고 말하고 있다.

제사 대상은 조부모까지 뿐이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들이 2세 3세인 경우는 자신이 자라면서 보았던 분은 조부모까지 뿐이라며 그 이상은 제사를 지내려 않는다. 자신이 모르는 분들에게까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얼굴도 모르는 대상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의의가 없다는 생각이다.

祭儀 順序는 다음과 같다.

- ① 參神 : 三獻官이 일제히 再拜한다.
- ② 降神 : 初獻官이 香床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線香 3개에 불을 붙여 손바닥을 흔들어 불을 끄고 향로에 꽂고 분향한 후 降神蓋에 祭酒를 부어 향로 위를 시계 방향으로 세번 돌린 다음, 고사리에 세번에 나누어 붓고 잔을 香床에 놓은 후, 拜席으로 돌아오면 三獻官이 같이 再拜를 한다.
- ③ 初獻 : 初獻官이 엎드려 다시 술을 잔에 따라 祭床에 올리고 젓가락을 채소류 위에 내려 걸친 후 初獻官이 再拜한다.
- ④ 亞獻 : 亞獻官이 拜禮하고 스스로 祭酒를 부어 初獻하는 방식과 같이 蓋을 올려 再拜한다.
- ⑤ 終獻 : 終獻官이 拜禮하고 初獻하는 방식과 같이 잔을 올려 再拜한다. 그리고 插匙를 한다.
- ⑥ 添酌 : 初獻官이 拜禮하고 添酌 잔에 술을 붓고 祭床 위의 술잔에 세 번에 나누어 添酌한다. 그러면 三獻官 一同이 再拜한다.
- ⑦ 獻茶 : 執事가 갓 그릇을 조금 옮겨 그 자리에 숟가락을 올리고 숟가락으로 메세 숟갈을 조금씩 떠서 숟가락에 넣고 숟가락을 숟가락 그릇과 메에 걸쳐 놓는다.
- ⑧ 闔門 : 獻官들이 바깥으로 나와 문을 닫고 4~5분 정도 정숙하게 攝한다.
- ⑨ 開門 : 初獻官의 기침 소리의 신호에 따라 일동이 일어서서 문을 열고 들어

간다.

⑩ 雜食 : 初獻官이 술가락으로 메를 조금씩 세 번 숟방에 떠 놓고, 갯과 술을 한 술갈씩 떠 놓은 후, 숟방 그릇을 옮겨 갯 그릇을 제자리에 놓으며 수저를 제자리에 놓는다. 그리고 祭床 위의 각 재물을 조금씩 숟방에 끊어 놓아 숟방 그릇을 香卓에 내려놓고 메의 뚜껑을 덮는다.

⑪ 辭神 : 獻官 일동이 再拜를 하고 拜席에서 물러나면 참석한 가족들이 차례로 모두 再拜한다. 단 여자는 배례를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내려왔다.

⑫ 撤饌 : 가족들이 祭床의 재물을 정리한다.

가족들은 부모, 조부모에 대해 제사를 지내므로 참석자들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집사 2인, 제관 3인이 갖추어지는 일이 드물다. 따라서 제관이 1인이면 혼자서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執事의 역할을 다한다. 제관이 2이면 한 사람이 초헌관, 종헌관, 집사 역할을 한다. 여성이 제관이 되는 경우는 없다. 제사는 장남만이 지낸다 하여 차남 이하인 경우는 안 지낸다.

제주에서는 辭神 후에는 雜食을 하고 紙榜을 焚燒한다. 雜食은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재물을 조금씩 뜯어 술잔에 넣는 것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이것을 출입로인 '올래' 어귀에 가 던지는데 일본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 이런 행위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출입문 입구에 5분간 두었다가 치워 버린다. 또 지방이 없고 사진만 올리므로 지방을 분소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제주의 순서를 따르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마. 祭祀에 對한 觀念

濟州牧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장남이 祭祀權을 갖는다. 그런데 일본의 1세대 제주인들이 모두 장남이 아니며 비록 그들이 장남이라 하여 일본에서 제사를 지낸다 하여 제주에 남겨진 후손들이 그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의 1세대 제주인이 장남인 경우 일본에서 제사를 지낸다 해도(물론 봉제 대상은 조부모까지 한정한다.) 제주에서도 그 후손들이 역시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다. 즉 한 조상에 대해 두 번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는 것이다. 또 일본의 1세대 제주인이 차남 이하인 경우에도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때 그들은 부모의 제사날인데 그냥 있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고 한다. 섭섭하니 가까운

친척, 가족이 모여 저녁이라도 같이 먹기 위해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물론 이 경우 제주의 장남은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상 제사에 참여하여 조상을 추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자책감에서 행하는 것이다. 金達奎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동생이 제주에서 조상 제사를 지내고 별초를 해 준다는 점 때문에 자신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 동생의 집을 지어주고 있다. 제사를 못지내는 것에 대한 보상 행위이다.

또한 그는 조카들이 기일을 지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기일이 들어있는 주일의 가까운 일요일을 택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형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조상이 오는 기일날은 제사를 하지 않고 오지도 않는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불참하는 것이다. 이는 제사날에는 영혼이 참석한다는 생각이다.

姜辛玉의 다음의 예처럼 제사에 대한 합리적 생각도 보인다.

지금은 9시에 제사를 지내지만 몇년 전만 해도 새벽 1시가 되어 제사를 지냈다. 일본과 제주도는 거리가 떨어져 약 1시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제사하는 자시 곧 밤 12시 경이 되면 일본은 새벽 1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맞추어 새벽 1시에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드 들고 자식들도 멀리 떨어져 살면서 제사에 참석했다가 다음 날 직장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제사날 부모님께 다음부터는 '9시에 지내겠습니다.'고 알린 후에 그대로 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9시에 제사를 지내면서 부모님이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고 10시쯤 되면 끝나니 그 때 제주도에 가시면 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福岡과 제주가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걸리니 늦어도 제주에 도착하면 12시가 되어 고향에서도 제사를 지내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일 전 재물을 준비하여 기일로 넘어가는 자시에 제사를 해야하는 원칙에 비하면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기일 전에 제사를 지내고 있으므로 前日祭도 아니고 後日祭도 아니다. 金達奎의 말에 의하면 조상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며 자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어렸을 적 보아왔던 행제 순서, 제물 종류는 고향을 방문하면서 배워 그대로 행하고 있다. 장례가 법으로 금지되고 친척이 없어 제주식으로 할 수 없음에

비해 가족끼리 자신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행제 시 필요한 집사 2인 헌관 3인이라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곧 가족만 제사를 지낼 경우는 1세대들이 다른 헌관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2세대들은 순서를 모르기 때문이다.

2) 止祭

사대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제의 개념이 희박하다. 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제주인 장손이 사망하면 증조부모의 지제가 이루어진다. 보통 기제사와 같이 제물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고 난 후 축문을 불사름으로써 마무리 된다. 글을 모르니 읽지도 않는다.

3) 墓祭

집안에 슬픈 일, 기쁜 일 등이 생기면 언제든지 묘소를 찾는다. 또한 묘소에 음식을 갖고 가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다. 따라서 묘제를 따로 지내는 일은 없다.

IV. 生死觀

이상 재일제주인들의 제의변용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생자와 사자라는 관념을 통하여 의례 변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사관념은 곧 조상제사관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제사가 사자에 대한 의례이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는 생과 사의 구분이 호흡에 있다지만 재일제주인들이나 일본인의 관념으로는 의례를 통해 생사 관념이 나타난다. 장례는 이러한 그들의 생사 관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제주도에서 장례는 初終, 收屍, 梟復, 訃告, 殮襲과 入棺, 成服, 日晡祭, 發靱·成墳, 虞祭, 上食, 朔望祭, 卒哭, 大·小祥, 禫祭가 주요절차이다. 이 순서는 發靱·成墳을 중심으로 망자와의 이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운명하게 될 때 가족들이 모여 원미를 마련하여 돌아가는 분 입에 조금씩 넣어드리는 초종에서 운명을 예감하고 고복을 함으로써 영혼이 육체를 떠나갔음을 확인한다. 고복을 하고 영혼

이 돌아오지 않을 때 생자에서 사자의 영역으로 옮겨갔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표시의 의례로 성복제를 치른다. 그러나 이 때 망자를 완전한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영혼이 저승에 완전히 안착해야 비로소 생자와 다른 영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제주 무속에서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 저승에 가지 못한 경우는 사가 된다고 하여 이를 악귀로 여기고 있다. 때문에 조상의 영혼이 악귀로 남게 하지 않으려는 자손의 노력은 정성스런 의례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성복제를 통해 영혼이 사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의식을 치르고 이승에 남은 육체와의 이별 의례를 행하는데 이것이 日晡祭이다. 일포제를 치르고 나면 운구하고 가서 매장한다. 육체와의 離別 儀禮는 三虞祭로 마무리된다.

망자의 영혼은 육체가 매장될 때 저승을 향해 떠났고 그 길은 멀고 험하다. 저승으로 가는 기간은 소상을 지나 대상까지이다. 영혼이 저승에 안착하면 그 때부터 영혼은 생자령역에서 완전한 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나타낸 의례가 담제이다. 성복제부터 대상까지는 메를 왼쪽, 갯을 오른쪽에 놓는 등 생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듯이 올리다가 담제부터는 메를 오른쪽, 갯을 왼쪽에 올림으로써 사자령역에 들어갔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례 의례의 해석은 무속적 세계관에 따른 것이다. 지금도 제주도에서 불러지는 무가인 차사본풀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님 차사가 저승을 다녀오고 있다.

東京國 버무왕의 아들 7형제 중 3아들이 단명할 운명이어서 東觀岫寺에 공양을 드리고 수명 연장을 기원했다. 3년 공양을 마치고 부모님을 뵈러 동경국으로 돌아가는 도중 광양땅에서 과양생의 처에게 죽임을 당하여 연못에 버려져 예쁜 꽃으로 변했다. 과양생의 처가 그 꽃을 따다 화로불에 넣으니 삼색구슬로 변한다. 과양생의 처는 그 구슬을 입에 넣고 굴러다 삼켜 임신을 하고 3아들을 낳았다. 아들들은 공부를 잘하여 장원급제하고 돌아왔지만 문전상에 배례하다 갑자기 죽는다. 과양생의 처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자 그 억울함을 김치 원님에게 고했다. 김치 원의 부인은 강님으로 하여금 염라대왕을 잡아오게 하여 그 사건을 판결하게 하였다.

강님은 18부인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지만 糟糠之妻만 그를 도와주었다. 부인은 門前, 籠王을 위한 시루떡과 강님이 저승 가며 먹을 시루떡을 만들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 입히고 저승으로 보내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다.

“ 남편님아, 東軒 마당에서 원님이 저승 가는 증거물이나 주셨습니까 ? ”

강님이 내어 놓는 것을 보니, 흰 종이에 검은 글자를 쓴 것이었다. 강님의 큰 부인은 번개같이 동헌 마당에 달려가서,

“ 원님아,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 하지만, 저승으로 열라대왕을 잡으러 가는데 어찌 이런 글자가 됩니까? 생인의 訴紙는 흰 종이에 검은 글이나, 저승 글이야 어찌 이리 됩니까? 붉은 종이에 흰 글자를 써 주십시오.”

“ 옳다, 내 실수를 했구나.”

붉은 종이에 흰 글자를 써 주니, 그때 법으로 사람 죽어 銘旌을 쓸 때 붉은 바탕에 흰 글자를 쓰는 법이다.

강님이 저승 의복을 입고 보니, 부인이 어느새 이렇게 잘 차려 놓았는가 감탄이 앞섰다. 저승 글자를 받고 돌아온 부인에게 물었다.

“ 이 의복은 언제 이렇게 차렸느냐?”

“ 벌써 이런 일이 당할 줄 알고 지어 놓았습니다.”

그때 낸 법으로 우리 인간 법도, 사람이 죽기 전에 미리 수의를 차려 놓는 법이다.

이렇게 하여 저승을 찾아가다 강님은 조왕할머니와 문전신의 도움으로 무사히 저승길로 들어섰다. 저승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저승문을 지날 수 있는 징표인 同心結, 雲鬘, 鬘鬘을 보이자 문지기는 강님의 적삼을 들어 강님의 三魂을 불러 저승으로 보내주었다. 저승에 거의 이르르니 행기못 가에 저승에도 못가고 이승에도 못 온 영혼들이 물러들었다. 갖고 갔던 떡을 잘게 끊어 동서로 뿌렸다. 영혼들이 주워 먹는 사이에 행기못 속으로 뛰어드니 바로 저승이었다. 얼마 없어 열라대왕이 나타나자 강님은 달려들어 몸을 결박하였다.

그때에 낸 법으로, 우리 인간도 죽어 갈 때엔 밧줄로 결박하여 데려 가는 것이다.

열라대왕은 강님에게 이승에 꼭 가겠다고 약속하고 겨드랑이에 떡을 끼워주며 흰 강아지를 따라가라고 했다. 떡을 조금씩 끊어주며 행기못 가에 이르렀을 때 흰 강아지가 강님의 목덜미를 물고 연못 속으로 빠졌다. 정신이 아찔하는 사이에 강님은 이승에 와 있었다.

그때에 낸 法으로, 사람이 죽으면 겨드랑이에 떡을 품기고 묻는 것이다. 그리고, 강님이 이승으로 돌아올 때에 흰강아지가 목덜미를 물었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없으나 남자는 목덜미에 빠가 튀어나는 법이다.

한밤중에 강님은 부인 집을 찾아가니 첫 제사를 치르고 있었다. 저승 가서 3일을 살았는데 이승은 3년이 되어 있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생각, 형제들의 생각, 남편에 대한 첩들의 생각을 듣고 난 후,

“ 큰 부인은 내 없으니 어떤 생각이 나타나?”

“ 설운 남편 없어지니, 초하루, 보름 삭망만 넘겨서 남의 말 듣고 개가하자고 했는데, 인간 정리를 생각하는 게 열 두 달 소기까지 앉았습니다. 소기만 넘겨 남의 말 듣고 가려 했지만, 정리를 생각하여 스물 녀 달 대기까지 앉았습니다. 대기 넘어 남의 말 듣고 가려 했는데, 첫 제사까지 앉고 보니 설운 男人님이 오셨습니다.”

큰 부인은 수절하여 앉았으니, 이로부터 열녀법이 마련되고, 이승에서 禮文禮章만 드리면 저승에 가서 남매가 되는 법이 되었다.

그날 밤 강님은 오랜만에 큰 부인하고 사랑을 풀어 누웠다. 이는 곧 뒷집의 김서방에게 탄로나 강님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 염라대왕이 오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원님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염라왕은 약속대로 찾아오니 김치 원님은 과양생의 처의 소지를 해결해 주도록 부탁했다.

염라대왕은 연화못으로 가 금부채로 물을 세 번 때리니 버무왕 아들 3형제의 뼈가 있었다. 다시 금부채로 세 번 때리니 3형제가 살아났다. 과양생의 처는 죄가 드러나 염라대왕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염라대왕은 강님이 똑똑함을 알고 김치원님과 의논하여 영혼을 차지하고 김치원님은 육체를 차지하기로 하였다. 영혼이 없어진 강님은 죽은 것이다.

강님의 큰 부인은 섭섭하기 이를 데 없었다. 殮襲·成服·日晡祭·動棺을 해도 섭섭한 마음 그지없어, 역군을 모아가다 상여를 매게 하고 “어기닝창” 상여 소리를 불러봐도 섭섭하기 여전했다. 좋은 땅에 감장하고 초우재우삼우제 지내고 초하루보름 삭망제를 지내어도 섭섭했다. 그래서 소가대기 지내어도 섭섭함이 남아, 일년 한두어 번 잊어 버리거나 앉으려고 三名節, 忌日 祭祀法을 마련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명정은 붉은 종이에 흰글자를 쓰며, 수의는 미리 지어두는 것이며, 시체는 묶고, 시체의 거드랑이에는 떡을 끼워준다. 더구나 남자의 목뼈가 튀어나오게 된 이유, 열녀법, 죽음의 유래, 삼명절 제사법 등이 설명되어 있어 장례와 제사의 이유를 알게 해 준다.

망인이 저승에서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소상을 치르는 셈이며 저승의 3일은 이승의 3년이다. 강님은 저승에서 3일을 살고 이승에 돌아왔지만 육체만 이승에 남아 있고 영혼은 염라대왕의 차사가 되어 저승과 이승을 오고 가는 것이다. 죽음이란 것이 육체는 이 세상에 남기고 영혼만 염라대왕에게 가는 것이라고 관념하고 있으므로 그 영혼이 염라대왕에게 도착하기까지 영혼을 위해 생인처럼 음식 대접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관념이라 생각된다.

강님은 염라대왕을 만나고 이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보통 사람은 염라대왕을 만난 후 강님처럼 돌아올 수 없으므로 3년 째의 제사인 대기를 치르고 나면 이는 생인과의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게 된다. 완전한 이별 이후는 곧 사자이며 생자의 요소는 없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담제인 것이다. 대기까지는 생인처럼 취급하여 식사를 대접하지만 담제를 치름으로써 망인이 되면 생인과 반대의 의미를 가지므로 조상과 인간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이 이후부터는 기일이 제사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제주인의 생사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靈魂生 · 肉體死					靈魂肉體死	
成服祭	日晡祭	三虞祭	小喪	大喪	禫祭	祭祀
불완전한 죽음					완전한 죽음	

이러한 생사관에 따른 조상 제사는 유체를 매장할 때의 사고이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로 인식하면서 영혼은 육체를 떠났다가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제주의 무속의례의 낯들임이 바로 그것이다. 낯들임은 육체에서 빠져나간 낯을 들여넣는 의례이다.

아이들은 조그만 일에도 놀래고 잠을 자면서 나쁜 꿈을 꾸어 잘 울곤 한다. 이럴 때 아이의 낯이 나갔다고 하여 삼승할머니를 모셔다 작은상을 차려 삼승할망본풀이를 창하고 낯들임 의례를 행한다. 아이가 놀랄 때 입었던 옷옷을 아이의 정수리에 올려놓고 입으로 낯을 붙여넣고 아이의 이름을 세 번 부른다. 아이가 세번 대답하면 낯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의례는 아이의 낯은 정수리를 통해 나가고 들어온다고 관념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¹⁾ 이처럼 제주도인은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 있고, 그 영혼은 정수리를 통해 나가고 들어온다는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제주인들은 매장이 아닌 화장이라는 제도 때문에 사고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그들의 장례의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제주 출신자들은 장례 의례 시 성복제부터 제사처럼 지내고 있다. 제사는 망자를 사자로 인식하고 지내는 의례로 성복제를 제사처럼 지낸다는 말은 생인과 망인이 완전히 구별되는 세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성복제 이전은 생인처럼 여기나 그 이후는 완전히 망인이 되는 것이다. 전통적 제주의 장례에서는 소상, 대상을 치르기까지는 생자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 상태이지만 생자처럼 생각하고 있다. 제를 지낼 때 메는 왼쪽, 갯은 오른쪽에 올리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성복제를 생자와 사자와의 단절로 인식했기 때문에 사자로 인식하고 메를 오른쪽, 갯은 왼쪽에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그 이후의 제의 순서인 일포, 우제, 소상, 대상, 담제 등에서도 같다.

1) 玄容駁, 「낯들임考」, 『北泉沈汝澤先生回甲紀念論叢』, 北泉沈汝澤先生回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82.12.

이러한 관념의 변용은 매장과 화장이라는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매장은 육체를 떠난 영혼의 완전한 저승 안착이 죽음이라는 인식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혼이 저승에 안착하기까지의 제는 생인처럼 지낸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화장을 시킴으로써 망자의 육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여기고 이는 곧 완전한 죽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듯 하다. 그 결과 성복제부터 메는 오른쪽, 갯은 왼쪽으로 올리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통해 죽음을 확인하고 통야를 지내 육체를 화장함으로써 생자와 사자와의 관계를 단절한다. 조상과 자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통야를 통해 생과 사가 분리되고 화장으로 마무리되는 반면, 재일제주민들은 전통적 장례 순서인 성복제에서 생과 사의 분리가 시작되어 화장 후 담제가 되어서야 마무리되고 있다. 성복제에서 생사의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여기면서도 담제까지 그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성복제 이후의 제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다. 재일제주민들은 화장 후 우제를 기제사처럼 치른다. 기제사는 완전한 사자에 대한 의례이기 때문에 우제를 기제사처럼 치르는 것은 사자를 완전한 사자로 인식한 결과이다. 따라서 장례 의례 중 초우, 재우, 삼우제를 따로따로 치르는 순서에 합리성을 찾지 못하고 사자에 대해 거처야 할 의례의 순서라는 인식이 강하므로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다. 상식도 생자처럼 식사를 올리는 것인데 재일제주민들은 사자는 생자가 아니므로 생자에게 하듯이 식사를 올리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삭망제는 초하루와 보름에 치러야 하는데 초하루에만 치르고 있으며, 그 기간도 자신들의 편리에 의하여 첫 일요일을 택하여 치르는 등의 변화가 있다. 소상, 대상에 대한 관념도 망인에 대한 추모이며 단순한 제사의 다른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인과 망인을 구별하는 의례인 담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기제사는 망자를 완전한 사자로 인정하고 치르는 의례이다. 기제사에서는 첫째, 조상에 대한 사고의 변용을 들 수 있다.

일본이 대부분 조부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최근에는 부모만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제주인들의 생각도 변화하고 있다. 도일 1세대는 사대 봉사를 하거나 조부까지 제사를 지냈지만 2세대부터는 얼굴을 모르는 대상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 그들의 제사상에는 지방도 없고, 제사

대상의 사진만 올리고 있다. 모르는 자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반면에 제사를 통해 부모를 추모하고 자손으로서의 동질감을 갖는 것은 제사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尹惠淑의 예에서는 北九州에서 福岡의 제사에 참석하거나 심지어 대판의 제사에까지 참석하고 있다. 이는 제사를 통해 제주인이라는 생각과 일본과 다른 전통의례를 통해 친척끼리의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국은 옛날부터 뿌리깊은 유교식 사고가 강하다. 제주도는 여성중심의 무속식의례문화와 남성중심의 유교식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장례의례에서는 유교식 사고가 강하다. 조상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망자의 유체는 소중히 다뤄진다. 유체를 훼손하는 것은 불효가 된다. 그런데 일본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진 화장방식은 사고의 혼란을 가져와 유교식 사고를 변화시켰다. 제사의 봉사대상이 조부모로 한정되고, 소중하게 유체를 보존하지 않고 화장시키는 것이다.

기제사에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 결과, 제사의 순서에서 변용이 일어난다.

제사의 순서는 參神, 降神, 初獻, 讀祝, 亞獻, 終獻, 挿匙, 添酌, 獻茶, 雜食, 撤饌 順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상신을 맞이하여 식사대접을 하고 돌려보내는 의식이다. 여기서 독축은 조상신을 향한 자손들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지방이 있으면 필요하겠지만 사진이 있으므로 사진을 보면서 추모하면 되며 실제로 영혼이 와서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므로 불필요하다는 의식이 강하다. 이러한 의식은 제사에서 잡식순서를 없애기도 했다.

지방이 없이 사진을 올리는 경우는 지제의 순서가 없다. 사진을 올리는 것은 얼굴을 알 수 있는 대상 곧 부모 또는 조부모에 한정된다. 때문에 장손의 사망으로 제관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제사를 안 지내게 된다. 제사를 안 지내면 바로 그것이 지제이다. 그러나 지방을 붙이는 집안에서는 지방이 곧 봉사대상이므로 제의 순서를 중시하여 지제를 지내고 있다.

묘제는 직접 묘지에 가서 지내는 의례이다. 그러므로 조상이 묻혀있는 제주도에 가서 제를 지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일본에서 재일제주인들의 묘제는 없다. 단지 일본에서 죽고 화장하여 일본 묘지에 잠들어 있는 선조의 경우는 1세대 또는 2세대가 대부분인데 그 후손들은 일본인들과 같은 사고 속에서 조상을 대하고 있다. 즉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묘를 찾아가 기원을 한다. 여유가 있는 집은 집안에 불단을 만들어 매일 불단에 기원을 하고 있다.

작은 그릇에 밥, 과일 등 집에서 먹는 음식을 조금씩 떠 넣고 불단에 놓고 두 손을 합장하여 기도를 하고 곧 내려놓는다.

이처럼 그들은 매일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으므로 구태여 묘에 찾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1년에 1번 묘지에 찾아가 제사를 지내는 제주도 방식보다 더 조상에 대한 추모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불단에는 「○○家之位」라 하여 位牌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망자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의 묘제는 봉사 대상이 개별적이다.

예를 들어 고조부모 묘의 비석에는 「學生金公○○之墓」, 「孺人姜氏之墓」라 되어 있다. 學生, 孺人은 망자의 지위를 나타내며 성은 김씨, 강씨(집안에 따라 본관을 밝혀 ○○姜氏 등으로 쓰기도 한다.) 이름은 ○○의 묘지라는 의미이다. 이 비석은 공식적 표지의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고조부모의 제사나, 묘제를 지낼 때는 지방에 「顯高祖考學生府君神位」, 「顯高祖妣孺人姜氏神位」라 쓴다. 顯은 망자를 나타내고, 고조고는 고조부의 의미이며, 學生은 지위, 府君은 망자의 尊稱으로 비석에 성명이 있는 것과 다르다. 이는 개별명칭으로 가족, 친족이 누구의 제사 또는 묘제임을 알고 참석하고 있으므로 성명을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V. 變容의 要因

이상 九州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제주인의 의례 변용을 조사한 결과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상적인 죽음은 가정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행해지는 梟復, 殮襲, 入棺, 成服 등이 제주도와 동일할 수가 없다.

2. 제주도의 상례는 순서가 복잡하고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한다. 사망하면 친족이 모여 상복을 만들고,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하므로 망자에 대한 추모보다 조문객을 대접하는 것이 목적인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의 장례는 망자를 위해 최고의 집, 최고의 차가 동원되는 등 예우를 잘 갖추고 있어 재일제주도인에게 있어 망자에 대한 예의는 전통장례보다 일본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변용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3. 제주도의 부락민들은 망자를 위하여 관을 만들고 묘지까지 관을 운반하여 매장하는 일까지 담당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가족들만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례를 부락민들이 모여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이 담당하고 있다. 즉 장의사와 비용을 합의하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장의사가 처리해 주므로 오히려 그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4. 제도적으로 매장이 금지되고 있는 점은 화장을 당연시하게 하고 이러한 제도는 토신제, 발인, 성분 등의 제도를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5. 제주인들과 접촉이 가능한 대관과 같은 곳에서는 전통방식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접촉할 수 있는 제주출신이 적은 곳에서는 변용 속도가 빠르다.

이 외로 일본 절에서는 고기를 금하고 있지만 재일제주인들의 장례에서는 망자에게 고기를 올리는 것을 묵인하고 있고, 일본 장의사가 제주인들의 장례를 위해 전통 장례법을 잘 알고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요소인 돈이 관련될 때 일본 절이 제주의 장례문화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